

□ 테마가 있는 독서여행

스스로 아름다울 미래, 인류 자취 살피며 준비하라

최상진

(국문과 교수)

방학은 학기 중 못다한 일을 점검하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제대로 된 계획과 실천으로 방학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즐겨야 한다. 방학이 끝나는 무렵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자책감에 빠져드는 우를 범하지 말자. 스스로 아름다울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대학인이다.



▲남아메리카의 인디오족, 풍년을 자축하는 티티카카호 주변 고원에 사는 아이마라족(황금가지 내용 중)

정보사회 속의 미래에 대한 사색 인류학 관점에서 다룬 원시사회

대학인에 있어서의 방학은 체험의 계절이다. 체험은 곧 경험으로 남는다. 경험이 단순한 추억이 되어서는 안된다. 경험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 주는 지식으로 남게 하자.

체험에는 직접적 체험과 간접적 체험이 있다. 배낭여행을 떠나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하는 직접적 체험을 계획해 보자.

만일 이 계획이 여의치 않다면 다음으로 미루고 간접적 체험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간접적 체험의 최고는 역시 독서이다. 독서를 하되 이것 저것 마구잡이로 읽지 말자.

주제가 있는 독서여행을 하는 것은 독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첩경이다. 한 주제에 적게는 3권 많게는 7권 정도의 책을 집중적으로 읽게 되므로 그만큼 상승효과가 있다. 책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글을 다 쓸

이 세 권의 책은 각각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신화와 여러 원시사회와 문화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과거 원시사회의 정신세계를 다뤄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세 책은 우리의 사고를 아름다운 원시시대로 회귀하게 해 준다.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인도네시아의 오지를 여행하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각각 주장하는 바는 다르지만 그 풍부한 자료와 일관된 논리는 공부하는 방법론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를 판단하게 해 준다. 이 세 권의 책을 통해서 그토록 아름다운 원시인을 만날 수 있다.

원시인은 미개인이 아니다. 원시인은 자연 인간 합일에 바탕을 둔 풍부한 상상력과 창조력으로 당시의 문명속에서 존재한 아름다운 우리의 선조들이다.

이 책에서는 자연을 서슴없이 파괴하고 스스로의 인간정

신을 파괴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참담한 존재인가를 간접적으로 일깨워 주고 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길목에서 서서 미래에 대한 사색을 원시의 신화와 철학에서 먼저 접해 본다는 것은 미래의 지성으로서 미래를 더 내다보는 일이다.

신을 파괴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참담한 존재인가를 간접적으로 일깨워 주고 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길목에서 서서 미래에 대한 사색을 원시의 신화와 철학에서 먼저 접해 본다는 것은 미래의 지성으로서 미래를 더 내다보는 일이다.

신을 파괴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참담한 존재인가를 간접적으로 일깨워 주고 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길목에서 서서 미래에 대한 사색을 원시의 신화와 철학에서 먼저 접해 본다는 것은 미래의 지성으로서 미래를 더 내다보는 일이다.

신을 파괴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참담한 존재인가를 간접적으로 일깨워 주고 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길목에서 서서 미래에 대한 사색을 원시의 신화와 철학에서 먼저 접해 본다는 것은 미래의 지성으로서 미래를 더 내다보는 일이다.

신을 파괴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참담한 존재인가를 간접적으로 일깨워 주고 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길목에서 서서 미래에 대한 사색을 원시의 신화와 철학에서 먼저 접해 본다는 것은 미래의 지성으로서 미래를 더 내다보는 일이다.

신을 파괴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참담한 존재인가를 간접적으로 일깨워 주고 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길목에서 서서 미래에 대한 사색을 원시의 신화와 철학에서 먼저 접해 본다는 것은 미래의 지성으로서 미래를 더 내다보는 일이다.

무서운(?) 여름이다. 바깥 세상의 가히 살인적이라 나날 엄두가 나질 않는다. 집안에 선풍기가 있지만 뜨거운 열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덥고 짜증나는 날씨 탓에 이렇다할 계획도 없다. 그러는 사이에 방학이 벌써 반이나 지나갔고 이제야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보려하지만 그것마저 귀찮다는 생각뿐이다. 이제는 무얼해야하나? 여기 간접적으로 여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간접체험으로 독서를 하는 것이다. 테마별로 독서를 한다면 비록 몸은 덥지만 마음만은 시원할 것이다. 이에 우리신문에서는 여름 방학을 맞아 교수추천도서를 실어 학생들이 시원한 방학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학생들을 위한 추천 도서목록

테마	책	저자	출판사
문화	나의문화유산답사기3	유홍준	창작과 비평사
	조선미의 탐구자들	한영대	학교재
	귀신 먹는 까치호랑이	김영재	들녘
	나눔 나눔 나눔	조병준	박가서·장
	문명의 충돌	새뮤얼 헌팅턴	김영사
과학	상대성 이론의 참뜻	버트런드 러셀	사이언스북스
	인터넷 보안과 해킹	김태현	청암미디어
	즐거움 인터넷운전	우병현	고도
컴퓨터	현대사회와 과학문명	미셀푸코	나남
	광고로 꼭잡는 영어	박정	디자인하우스
영어	안정효의 영어들여다보기	안정효	현암사
	이집트 문명탐험	이문열	나남
기타	장미의 딸	유혜옥	민음사
	하늘과 순수와 상상	정진홍	강

서정범

(국문과 명예교수)

출가한 큰 딸이 며칠전에 책을 한권 사왔다. 딸이 읽어 보니까 내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방계 체질과 남방계 체질을 구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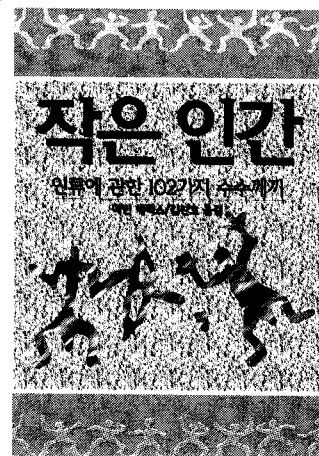
자식에게 책을 선물받기는 처음이기 때문에 무척 호뭇하게 생각했다. 나는 책을 주로 쓰는 편이지 읽는 편은 아니라 읽을 거를 읽어주지 못 할 뿐이다. 모처럼 자식이 권한 책이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더위를 잊고 읽었다.

북방계체질은 겉은 덥고 속이 차고 남방계체질은 겉이 차

지고기는 배고 다른고기는 이롭고 당근을 배고는 땅밀에서 나온 감자등 뿌리류가 이롭고 인삼이나 줄, 찰밥등이 이롭다. 그러나 남방계는 속이 덥기 때문에 냉성인 오이, 참외 수박 등이 좋고, 뿌리류는 해로운 것이다. 이제마선생(사상의학 창시자)의 사상의학은 내장이 실하나 허허냐에 의해 분류한 것이고 나는 문화인류학적이고 진화론적인 면에서 체질을 분류하는 것이다.

딸에게 선물받은 책은 Marvin Harris의 Our kind인데 역자는 이를 '작은 인간'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인류학에서는 인간이라는 대상을 하나의 생물 종(種)으로 파악하면서 그 생존의 문화적 비밀을 추적한다고 보겠다.

이 책에서는 생물학적으로는



에서 겪은 온갖수모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인간청소 같은 행위, 그리고 우리의 사소한 일상속에 스며있는 부조리한 지배와 억압의 이면에도 견고한 의미체계와 정당성의 논리를 진화론적인 면

세계 속의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 미래문명에 대한 장구한 파노라마

고 속이 더운 편이다. 북방계체질이 겉이 더운것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고 남방계체질이 겉이 찬것은 더위를 견디기 위해서다.

북방계체질은 속이 차기 때문에 먹는 것이 열이 많은 열성 식품을 먹어야한다. 냉성인 돼

나약하기 짝이 없는 작은 인간이 지금의 이 엄청난 문명을 건설하게 된 경위를 헤아리는 것과 함께 그 거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작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는데서 역자는 '작은 인간'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아득한 원시의 옛날로 올라가 회미한 삶의 자취들을 흥미진진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 해리스는 이 책에서 특히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 인간의 폭력성과 지향성등에 대해 예리한 분석을 가한다.

지난 몇세기동안 세계 도처

에서 포착하고 있다. 원시적인 삶도 경멸이나 극복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낭만적인 미하나 동경의 대상도 아니다.

미개의 문명이 공존하는 현대에 우리는 인간의 다양한 생존경험을 성찰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실마리를 이책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느낄 것이다. 아울러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수수께끼를 풀어 주고 있는 책이라 하겠다. 이 책을 읽게 해준 내 딸이 자랑스럽다.

□ 지표작업-의정부를 찾아서

조상의 일 밝히는 밀거름

지표조사는 땅 위에 드러난 토기편, 기와편, 주춧돌 등 과거의 사람들이 남겨 놓은 물질문화의 흔적들을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분석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지표조사를 통해 어느 지역에, 어느 시대의, 어떠한 유적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 걸쳐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시굴·발굴조사를 계획할 수 있다. 이 지표조사의 목적은 예정지역내의 문화유적을 조사하여 역사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의 파괴를 방지하는 데 있다.

우리 중앙박물관에서는 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는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하거리 일대의 대충 팔포장 조성사업 예정지역 문화 유적 지표조사를 진행하였고 7월 14일부터는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일대의 금오 지구 택지 개발사업 예정지역 문화 유적 지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주 지역의 조사 면적은 29만평으로 1970년대부터 많은 문화유적의 발굴조사가 수행되어 선사시대 이래의 문화유적을 찾아내었다. 이 유적지에서 출토된 탄화된 쌀알로 인해 한반도 도작 농경의 기원이 기원전 8세기 경으로 상향 조정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의정부시 금오지구의 조사 면적은 약 39만평으로 의정부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하기 위해 의정부시 신곡리의 산중턱에서 방향을 찾고 있는 조사원들.

시에 바로 인접하여 있는데 중심부에는 시내가 흐르고 있으며 오른쪽에는 나즈막한 구릉이 있어 이곳에 선사시대 이후 인간집단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보인다. 특히 이 근처의 민락동에서 이 부근에서는 구할 수 없는 흑요석으로 제작된 석기가 발견되어 이 지역의 고고학적 중요성을 부각시킨 바 있으며역사시대의 것으로는 백제시대의 유적이 발견되어 삼국의 정치 판도를 밝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어 이번 금오 택지 지구에도 유적지의 존재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예측되고 있다. 이같은 조사와 작업이 우리 문화의 열과 모습을 찾는데 커다란 힘의 밀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문화단신

박학기 마이보 콘서트

우 미동 네 영화잔치

감미로운 목소리와 서정적인 노래, 그리고 독특한 창법으로 인기를 모아온 박학기가 콘서트를 갖는다. 이번 공연에서는 그간 팬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곡들과 함께 현재 준비 중인 6집앨범에 수록 예정인 신곡들을 부른다.

8월 2일부터 11일까지 평일은 7시30분, 주말은 4시, 7시이다.

학전블루스극장
전화 : 763-8223

회기들을 비롯한 동대문구 주민들과 경희인이 함께 하는 한여름밤의 야외영화제가 8월 9일까지 열린다. 더위에 지친 여름에 시원스러운 영화를 선 보인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추억의 SF명작 'E.T.'를 시작으로 김태균감독의 '박봉곤 가출 사건' 등 다양한 영화가 상영되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가정대 건물 앞 임강교실

절망의 대지 위에 희망의 손길을

대홍수가 휩쓸고 간 들녘
황색 모래바람,
누렁하게 말라버린 풀잎들,
굼주림에 시달려가는 생명들,
참혹한 그곳은 우리 형제자매의 영토입니다.
습게 식지 않는 애정이 모래바람을 막아내고
한 송이 꽃꽃을 피우냅니다.
종다 다가가려는 손짓이 시든 생명들에게
희망이라는 손길을 붙여 넣습니다.
북녘 절망의 땅에 희망을 전할합니다.